

짧은 구역 기도문 모음

짧은 구역 기도문 모음

짧은 구역 기도문으로 은혜로운 모임을 준비하세요. 구역모임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믿음을 나누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구역모임을 위해서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짧지만 의미 있는 구역 기도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역장님들이나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짧은 구역 기도문 1 - 모임 시작 기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19)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 구역 식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교제를 위해 모인 저희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믿음으로 모이는 이 시간이 영적 충전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며 참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임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고민과 근심이 있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2 - 말씀 나눔 전 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2025년 현재 많은 불확실성과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고, 일상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3 - 중보 기도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서로를 위해,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 구역 지체들의 필요를 아뢰웁니다.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지혜와 형통함을 주소서. 특별히 최근 경제적 불안정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소서. 학업에 지친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기쁨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 내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4 - 감사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하시고 도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일터와 가정에서의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서로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순간에도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5 - 회개와 용서의 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9)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소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며 온라인상에서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 물질주의와 이기심에 사로잡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했던 순간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에 소홀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특별히 구역 지체들 간에 있었던 오해와 갈등,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채워주소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6 - 가정을 위한 기도

“네 집과 네 성읍의 문을 널리 열고 네 가난한 형제와 궁핍한 자를 도울지니라” (신명기 15:11)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소서. 부모에게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가정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분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넓은 마음을 주소서. 특히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 애쓰는 가장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소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7 - 교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것을 알고 있다. 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11)

만민의 주재이신 하나님, 저희 교회와 나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리더들에게 청렴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특별히 2025년 현재 지속되는 국제적 긴장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주소서.

코로나 이후 여전히 회복 중인 교회와 사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8 -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4)

위로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고 아픈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 관계의 갈등과 상처로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기억하소서.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취업난 속에서 경제적 압박을 느끼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소서. 청년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소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힘과 위로를 더주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도 기억주소서.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이들, 보이지 않는 중독과 싸우고 있는 이들, 자신의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유해 주소서.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9 - 사명과 전도를 위한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선교의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저희의 일상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주소서.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 구역이 그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초청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종교적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주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구역 기도문 10 - 모임 마무리 기도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와 나눔을 통해 더욱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시간 나눈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계속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다음 모임 때까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구역 기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구역모임 자료실에서 더 많은 기도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